

인권운동 공동의 아카이브 구축 -신뢰와 협력 쌓기-



인권아카이브 훈창
<http://www.hrarchive.or.kr>
문의: hrarchive2021@gmail.com

1. 인권 아카이브 연혁

총 23281건 등
록



1. 인권운동의 공동 아카이브 구축. 첫 번째 모델

원하는 단체에서
각자의 기록을 원하는
다른 방식으로 정리 및
등록

청소년인권운동 기록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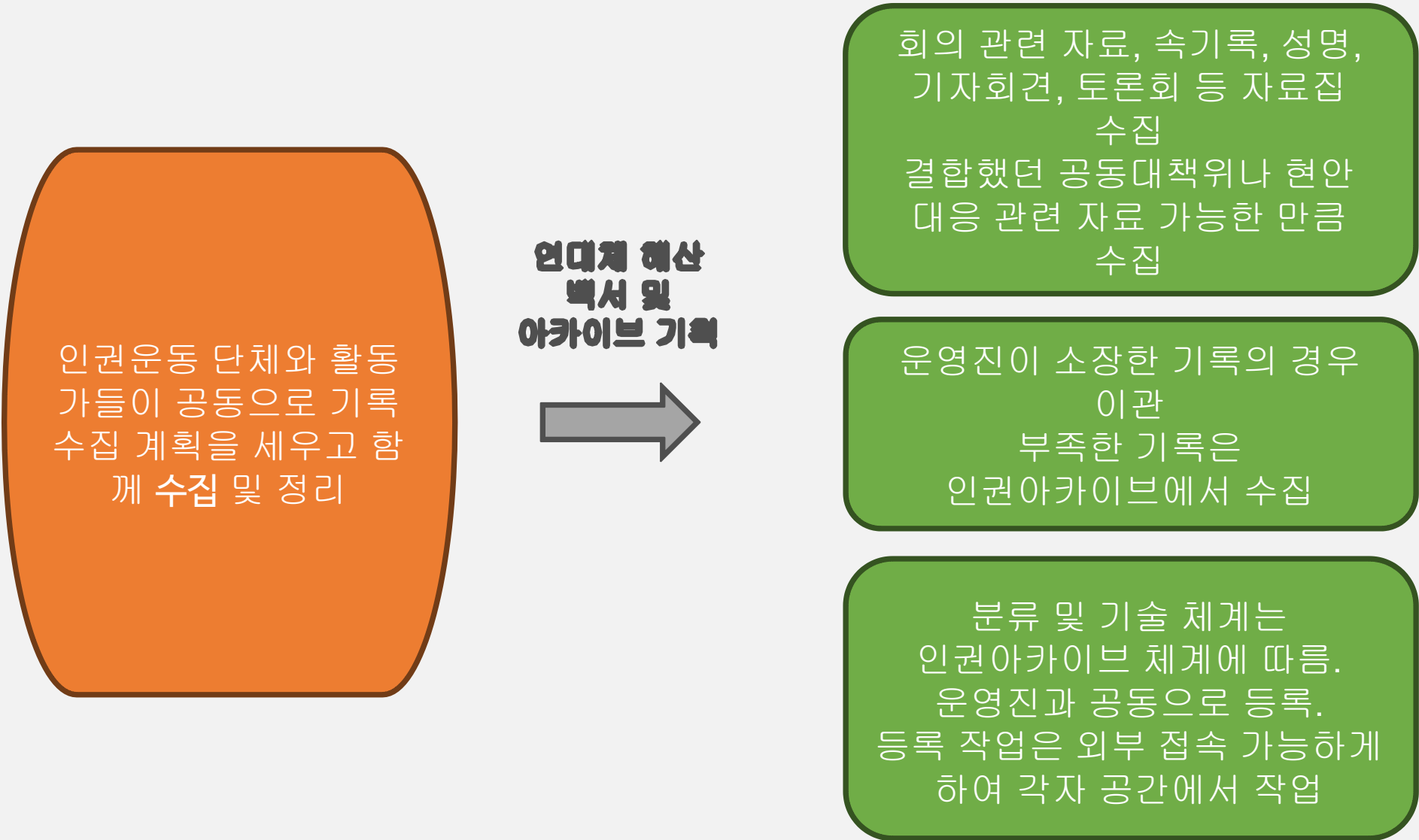


청소년인권운동 백서 작업을
진행하며 수집한 기록을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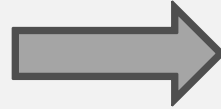
해당 활동가들이 유형과
분류체계를 정리하고 등록. 등록
작업은 외부 접속 가능하게 하여
각자 공간에서 작업

각 단체와 활동가들이 작업
여력을 내는게 쉽지 않아 기획
사업으로만 진행.

1. 인권운동의 공동 아카이브 구축. 첫 번째 모델



1. 인권운동의 공동 아카이브 구축. 첫 번째 모델



작은 규모와 활동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한 인권단체와 활동가에게 일상적인 공동 수집과 정리를 제안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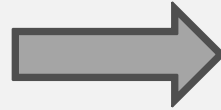
상이한 단체들에게 하나의 기록관리방안을 적용하기 어려움.

수동으로 이관을 하는게 업무 부담을 줌.

기획은 가능하지만, 일상아카이브로 진행하는 건 불가능.

1. 인권운동의 공동 아카이브 구축. 두 번째 모델

인권아카이브에서 수집
계획, 정리, 등록을 진
행.
다만 이 기록이 인권운
동 공동의 자산이라 규
정하고 이에 맞추어 활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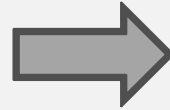
인권아카이브의 목적과 운영 원칙
1. 인권아카이브는 특정 개인이나 단
체의 소유일 수 없으며 인권단체와
인권활동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인
권운동의 역사이다.
2. 아카이브를 주관 운영하는 책임단
체는 인권 관련 정보의 수집과 축적,
관리 등의 책임을 질 뿐이며 특정 개
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아카
이브를 전용하거나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2. 공동 아카이브로서 인권아카이브 운영 방법



2. 공동 아카이브로서 인권아카이브 운영 방법

단체에서 기록을 기증할 경우



단체의 이사나 기록 기증 의사가 있을
경우 아카이브 활동가가 방문하여
실물 기록을 수집
※전자기록을 이관 하는 경우도 존재

전자기록 변환하여 정리
기록 목록 작성하고 목록을 단체에
제공
전자기록은 해당 단체에도 보내
공동소유



누구나 쉽게 이
해할 수 있는 기
술 방법

0. 인권아카이브의 목적

인권아카이브는 인권운동의 기록물을 학자, 활동가,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 방향은 기록물의 원질서를 보존하기 보다는 이용자들이 더 쉽게 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을 지향한다.

2. 공동 아카이브로서 인권아카이브 운영 방법

제목	부당 집단감문, 부당불우연락 노동자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내용	<p>2020년 5월 말 부당 부청신선동문선리에서 노동자 24명을 포함하여 150명의 시민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 농작의 정리, 거리두기 및 이동제한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에서 부당과 같은 불우지역, 특히 여성 노동은 사회의 필수노동의 공간이었다. 이 상황에서 나타난 부당-동문선리의 코로나 집단감염은 부당의 노동조건과 노동자들이 처한 민권 상황을 보여주었다. 이에 인권단체 및 노동자단체는 이에 대한 민권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p> <p>조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문 4 1. 부당 부청신선동문선리 집단감염 사고는 인제어차 안전의 문제 5 2. 조사개요 7 1. 코로나19 초기 발생과정과 부당의 대응 9 1. 부당과 연결된 152명의 집단감염원이 되었나? 10 1) 결과 10 2)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단리입을 통한 예방 13 2. 부당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은 무엇인가. 22 1) 허술한 방역태도와 느슨한 초기 대응의 상충리움이 감염원사본 이기형 20 2) 부당의 노동조건이 감염에 미치는 영향 32 3) 광도 노조 노동강도하에서 방역상의 문제점 43 4) 마프백 리기? 마파도, 디케르 말하기 44
	본서정보
본서번호	hc00023413
생산일자	2020-09-20
생산처	부당발 코로나19피해자 지원대책위원회, 부당노동자인권실태조사단
생산자	
유형	일반문서
형태	지문집/보고서
분류1	저반안전
분류2	불합정노동
분류3	지문

2. 공동 아카이브로서 인권아카이브 운영 방법

타 아카이브와의 협력

4.16 모으다

☰기록보기기억공간둘러보기참여하기소개🔍

[홈](#) / [기억공간](#) / [4.16인권선언](#) / [\[풀뿌리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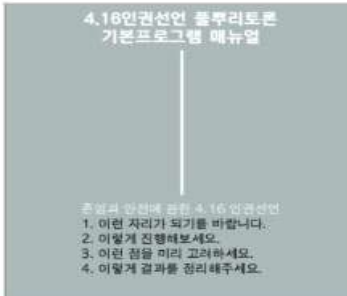
4.16인권선언

[4.16인권선언][4.16인권선언이 만들어지기까지][풀뿌리토론][#노란리본셀카 릴레이 캠페인][4.16인권선언 붙여 Hands Up][만인당독 프로젝트 소리내! 4.16인권선언]


[해설서 : 4.16인권선언 돋보기]

[풀뿌리토론]

4.16인권선언운동에서 풀뿌리토론은 선언의 주체를 세우고, 선언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든 발판이 되었다. 2015년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전국각지와 해외에 이르기까지 100여개가 넘는 장소에서 각계 각층의 1,100여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 공간에서 풀뿌리 토론을 조직했다. 수평적인 토론을 통해 탄생한 860여개 권리 목록들이 포개지고 엮여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이 만들어졌다. 워크숍 결과 및 풀뿌리 토론 자료는 각 사진에 달린 PDF 파일 캡션을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풀뿌리토론 매뉴얼]



[전체회의 웹자보]

2. 공동 아카이브로서 인권아카이브 운영 방법

416모으다, 인권아카이브, 416인권선언추진위원회 기록 기증 및
컨텐츠 구성 관련 공동회의

416 모으다

기록 기증방식 정리
인권선언팀이 정리한 상태로
입수
기록은 건별로 탑재 하고
컨텐츠 용은 재분류
인권아카이브 저작권
개작금지 상태 유지
기록물의 공동소유

인권아카이브 및 인권선언
추진위

기록 목록 작성
컨텐츠 초기안 작성
기증 자료 정리

컨텐츠 제작 및 등록은 416모으다에서 진행. 기록은 공동소유

2. 공동 아카이브로서 인권아카이브 운영 방법

기록 이관 및 타아카이브 구축

타 아카이브로 기록 이관

인권아카이브에서 수집했지만, 타 아카이브의 성격과 맞는 경우 기록을 이관. 해당 기록을 인권아카이브에서 따로 정리하진 않음.

강정 평화운동 아카이브

인권운동 네트워크 속 단체에서 아카이브를 구성할 경우 관리시스템과 홈페이지 등을 공유하고 해당 운동에서 아카이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운동 안에 아카이브 만들기

인권운동의 지금을 보여주는 아카이브	인권 아카이브 활동과 고민에 대한 공유	운동 사회 기록관리에 대한 고민 나누기
<p>오래된 기록 보다 지금, 조금 전에 만들어진 기록을 먼저 수집. 홈페이지에 먼저 보이는 기록은 최근 등록한 기록이 아닌 최근 생산한 기록.</p>	<p>등록 <u>기록 목록</u> 공개. 월별 <u>작업노트</u> 작성.</p>	<p>인권단체, 시민사회와 기록관리 관련 간담회. <u>소규모 단체의 협업과 기록관리를 위한 가이드북</u> 제작.</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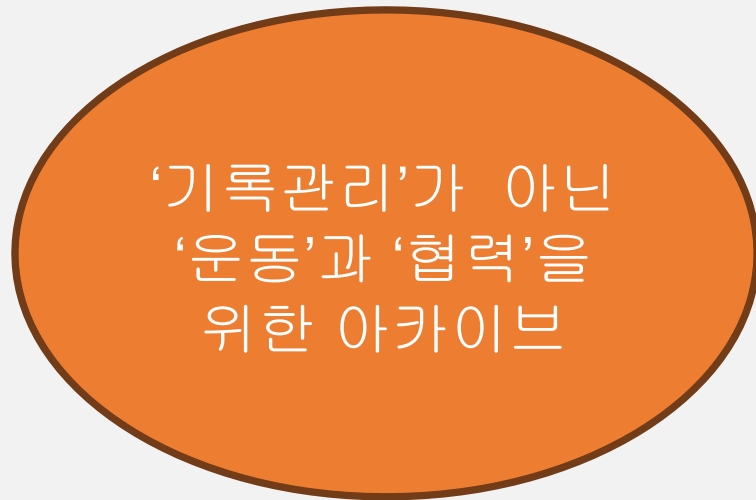
3. 공동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아카이브 활동의 주안점



아카이브 활동만이 아닌 인권활동으로
운동사회 네트워크에 참여.
ex)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
운영진 참여

운동 현장과 멀어지지 않는 아카이브
활동
ex) 차별금지법 제정 쟁취를 위한 국회
앞 농성 동조단식팀 참여
ex)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
단 아카이브 컬렉션 차별금지법 있
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 아카이브 컬렉
션 제작
ex) 세계인권선언일을 앞두고 해당
년도 인권일지 제작 추진

3. 공동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아카이브 활동의 주안점



인권아카이브의 목적을 '기록관리'가 아닌 '운동'에 두고 활동을 진행.



'운동'이 어떻게 협력과 연대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아카이브를 통해 접근

※소규모 단체의 협업과 기록관리를 위한 가이드북 제작

※운동단체에서 아카이브 관련 사업을 기획할 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지원

※인권아카이브로 모이는 것이 아닌 각기 다른 운동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지원.

연대 활동에서 아카이브의 위치

인권활동가로 참여하는 연대활동에서 기계적으로 '네트워크'의 기록을 보존 하거나, 관련 기록을 정리하는 방안으로 접근하지 않고 아카이브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어떻게 수집하고 어디까지 공개?

인권아카이브는 인권운동단체들과 따로 협약을 맺지 않고 기록을 수집하고 있음. 이러한 방법으로 기록을 수집할 때 해당 단체에 기록을 수집하고 있음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만약 협약을 맺는다면, 협약을 맺지 않는 단체들의 기록은 수집하지 않아야 하는 걸까? 100여개가 넘는 인권단체, 연관 단체에 이를 다 알리는게 가능할까?

5. 질문과 고민 나누기

